독일어권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A Trend Analysis of Research in Teaching as a Foreign Language for German Learners)

Young Ju Shin (University of Education Karlsruhe)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해외에서 한국학과 한국어 강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독일 내 한국학과가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설치된 대학은 2017 년 12 월 현재 Berlin, Bochum, Bonn, Frankfurt, Hamburg, Tübingen 등 여섯 개의 대학이며, 이외에도 세종학당이나(Berlin, Bonn, Tübingen), 독일 시민대학(vhs: Volkshochschule), 주독한국교육원(Frankfurt)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한국학 전공이나 부전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나 사설 학원과 주독한국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독일 초중고생(Grundschule, Gymnasium)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수업의 일종인 한국어 AG(Arbeitsgemeinschaft)에서도 한국어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내에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으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오는 독일 학생들의 증가세로도 이어진다. 2017 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독일 국적의 학생들은 유럽 지역에서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독일 학생들은 한국 문화보다 한국어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윤선영, 2012) 이러한 독일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하며, 이에 증가하고 있는 독일어권 학습자들에게 맞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작된 1990 년 초부터 2017 년 12 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시기와 연구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누리미디어), 스콜라(교보문고), 학술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어, 독일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세 번 이상 검색하였다. 아직까지 독일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학술대회 발표집에 수록된 연구도 살펴보았다.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아니더라도 연구 내용이 한국어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본 연구 자료에 포함

하였다. 한국어교육의 관점이 아닌 번역학 연구나 독어학, 외국어로서의 독일어학과 관련된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어와 독일어 비교 연구는 연구 대상이 독일어권 학습자가 아닌 독일어를 공부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